

5/2(월) 대하 1-5장 성전 건축자 솔로몬

역대기의 솔로몬은 <다윗의 후계자>, <성전 건축자>입니다(대상28:4-6,20).
솔로몬의 존재 이유,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영화를 허락하신 이유 모두
성전(예배)을 위한 것이며, 성전(예배)으로 인한 것입니다(1:11, 8-9장).

열왕기와 달리 역대기는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
개인 제사가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드린 공(국가적 차원) 예배로 그립니다(1:1-3, 대상29:23).
왕으로 첫발을 내딛은 솔로몬은 자신의 직무를 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.
<백성을 위해 통치하는 왕>. 솔로몬은 하나님께 <지혜>를 구합니다(1:9-10).

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영화로 <성전 건축>에 집중합니다(2:1, 왕상3:16-28 비교).
바로 딸을 위해 궁을 건축한 것도 <예배적 관점>에서 재해석 됩니다(8:11).
역대기는 솔로몬의 타락과 왕국 분열에 관한 책임을 언급하기보다
성전 건축과 예배공동체 건립을 완수한 왕으로서 공로를 인정합니다(8:16).
모든 것이 <성전>을 중심으로 전후관계 속에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.

역대기는 <예루살렘 성전>의 합법성을 천명합니다(3:1-2).
성전의 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며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곳이며(창22:2,14),
다윗이 회개하고 제단을 쌓았을 때 불로써 응답하신 곳입니다(대상21:26).
역대기는 합법적 성전 터에 관한 남북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자 합니다.
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며 자기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.
(신12:5, 대하6:6, 7:12,16, 창22:2 참고)

성전 건축 자체에 대한 기록은 오히려 축약되어 있습니다.
건물로서보다 <예배의 중심>으로서의 성전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.
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며, 예배하는 집입니다.
(3-4장, 7:21, 왕상6:1-7:51 참고/ 6:40, 8:12-14)

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합니까?

- ❶ 나의 묘비에 새기길 원하는 <나에 관한 소개>는 무엇입니까?
- ❷ 그렇다면 남은 생과 신앙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?

시작기도 + 통독 대하 1-5장